

한국어 수 보조사의 의미 기능 - 지시 의미 명세화

손현정 · Stéphane Couralet
(연세대학교, EHESS, 파리)

Son, Hyunjung & Couralet, Stéphane. 2005. Semantic Role of Korean Numeral Auxiliaries: Specification of Referential Meaning. *The Linguistic Association of Korea Journal*, 13(4), 91-111. This paper presents the semantic role of numeral auxiliaries in Korean language. Used with a numeral determiner and a common noun, Korean numeral auxiliaries form a nominal group to express the quantity of a referent. They are often called numeral classifiers, especially in cognitive linguistics, since their compatibility with common nouns shows certain patterns that seem to result in a hierarchical structure of the common nouns. In our analysis of fifty numeral auxiliaries in three large corpora, however, we found that this type of classification does not fully reflect the linguistic reality. Our analysis shows that the main semantic function of Korean numeral auxiliaries is to specify the referential properties of the common noun that is very often referentially under-specified in Korean. We also argue that mass/count noun distinction is not sufficient in characterizing Korean common nouns, and that additional factors such as eventuality, compositionality and measuring type should be taken into account.

주제어(Key Words): numeral auxiliaries, Korean, classifiers, semantics, referential properties, specification, common nouns, atomicity, eventuality, compositionality, measuring type

1. 머리말

한국어는 보통 명사의 수량을 표현하는 데 수 관형사와 함께 수 보조사를 필요로 한다.

- (1) {*두 새우, 두 마리의 새우, 새우 두 마리}
{*두 연필, 두 자루의 연필, 연필 두 자루}

{*두 전화, 두 대의 전화, 전화 두 대}
 {*두 장미, 두 송이의 장미, 장미 두 송이}

한국어의 ‘수 관형사+수 보조사’는 영어나 프랑스어의 수 관형사처럼 대상 명사를 수량화하는 기능을 하지만, 전자는 후자와 여러 가지 면에서 구별된다. 우선, 한국어의 수 보조사는 대상 명사와 의미 선택 관계를 이룬다.

(1') {새우 두 마리, *연필 두 마리}
 {*새우 두 자루, 연필 두 자루}

예를 들어 ‘두 마리’는 명사 ‘새우’의 수량을 표현하는 데에는 사용될 수 있지만 ‘연필’의 수량을 표현하는 데에는 사용될 수 없다. 반대로, ‘두 자루’는 ‘연필’의 수량을 표현하는 데에는 사용될 수 있지만 ‘새우’의 수량을 표현하는 데에는 사용될 수 없다. 그러나 영어의 ‘two’나 프랑스어의 ‘deux’는 명사 ‘새우’와 ‘연필’ 모두를 수량화할 수 있다.

또, 한국어에서는 같은 명사라도 결합하는 수 보조사에 따라 수량화되는 대상이 달라지기도 한다.

(2) {전화 두 대, 전화 두 통}
 {장미 두 송이, 장미 두 그루}

명사 ‘전화’는 수 보조사 ‘대’와 결합하면 전화를 걸거나 받을 때 사용하는 기구를 가리키는 반면 수 보조사 ‘통’과 결합하면 전화를 걸거나 받는 행위를 가리킨다. 또 수 보조사 ‘송이’는 명사 ‘장미’에 결합하여 장미라는 식물을 구성하는 여러 부분들 가운데 특별히 꽃만을 가리켜 수량화하는 반면 수 보조사 ‘그루’는 장미 전체를 개체 단위로 간주하여 수량화한다.

영어나 프랑스어에도 수 보조사가 존재한다. 그러나 이들은 주로 물질 명사를 수량화하는 역할을 하며, 특정수의 개체들의 집합을 나타내는 경우를 제외하면 가산 명사는 수량화하지 않는다. 반면에 한국어의 수 보조사는 물질 명사와 가산 명사 모두를 수량화할 뿐 아니라, 결합된 대상 명사의 지시 의미를 결정하는 데 관여한다.

- (3) {라면 네 그릇, 라면 네 개}
 {인삼 네 뿌리, 인삼 네 근}

‘라면 네 그릇’의 ‘라면’은 물질 명사이다. 그러나 ‘라면’에 수 보조사 ‘개’가 결합된 명사구 ‘라면 네 개’는 개체성을 가진 가산 명사로서의 라면을 가리킨다. 반면에 ‘인삼 네 뿌리’의 ‘인삼’은 가산 명사이다. 그러나 ‘인삼’에 수 보조사 ‘근’이 결합된 명사구는 질량이 문제가 되는 물질 명사로서의 ‘인삼’을 가리킨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강범모(1994; 1999)는 수 보조사가 대상 명사의 의미 타입을 전이시키는 함수라고 설명한다. 즉, 위 예문에서 수 보조사 ‘개’는 물질 명사 ‘라면’을 가산 명사 타입으로 전이시키고, 수 보조사 ‘근’은 가산 명사 ‘인삼’을 물질 명사 타입으로 전이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어는 가산/물질 명사의 구분이 영어나 프랑스어처럼 엄밀하지 않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수 보조사의 의미 기능에 대해 다르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본 논문에서는 연세 말뭉치, 카이스트 코퍼스, 한국어 사가스 말뭉치¹⁾ 등에서 추출한 수 보조사 50여 개의 실제 용례들을 분석하여 한국어 수 보조사의 의미적 특성을 기술해 보기로 하겠다. 특히, 수 보조사와 명사 사이의 의미 선택 관계와 명사 범주화 문제, 그리고 수 보조사와 명사의 지시 의미 명세화 문제에 대해 논하기로 하겠다.

2. 연구 대상 정의

한국어에 보통 명사를 수량화하는 기능을 하는 특별한 표현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오래 전부터 알려져 왔다. 그러나 이 표현들을 무엇이라고 부를 지²⁾, 또 그 범위를 어떻게 한정할 지³⁾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존재한다. 이는 한편으로 이 표현들이 수행하는 대표적인 두 기능-‘셈’, 즉 대상 명사의 수량화 기능과, ‘가름’, 즉 대상 명사의 의미 범주화 기능-가운데 어느 쪽에 무게를 둘 것인가에 대해 의견이 나뉘고, 다른 한편으로는

1) 한국어 사가스(C-SAGACE)는 R. Blin과 S. Couralet가 모국어가 프랑스어인 화자들 위해 만든 한국어 말뭉치이다.

2) 이 표현들은 기존 연구에서 셈 낱말이 메인 이름씨(최현배, 1937), 셈 가름말(김영희, 1981), 단위성 의존 명사(남기십, 고영근, 1985), 수 단위(서정수, 1994), 분류사(채완, 1990; 우형식, 1998, 2000), numeral classifier (Martin, 1992), classificateur numrique(Lee J.-M., 1991), auxiliaire du nombre (Blin, 2003; Couralet et als., 2004) 등으로 불리어 왔다.

3) 자세한 논의는 임홍빈(1991), 이남순(1995), 우형식(2000) 참조.

‘사람’이나 ‘사발’, ‘상자’처럼, 일반적으로는 통사적 자립성을 유지하지
 만 수 관형사와 결합하여 수량 표현에 나타날 때에는 자립성을 잃는 명사
 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 여러 가지 다른 의견들이 제시되어 왔
 기 때문이다. 본 논문에서는 대상 명사를 수량화하는 표현들을 ‘수 보조
 사’라 부르고 다음과 같이 정의하겠다.

수 보조사는 다음 통사 구조에서 X 자리에 대입될 수 있으며, 의미적으
 로 명사를 수량화하는 기능을 한다.

(4) 제1 구조: 명사	수 관형사 ⁴⁾	X
제 2 구조: 수 관형사	X (_의) ⁵⁾	명사 ⁶⁾⁷⁾

이 정의에 따르면 다음 예문 (5)의 ‘벌’은 수 보조사이지만, (6)의 ‘대’
 는 수 보조사가 아니다. (5)의 ‘옷 한 벌’은 ‘한 벌의 옷’으로 대체될 수
 있고 수 보조사 ‘벌’이 명사 ‘옷’을 수량화하는 기능을 하고 있지만, (6)
 의 ‘배 한 대’는 ‘한 대의 배’로 대체될 수 없으며 수 보조사 ‘대’는 명사
 ‘배’를 수량화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5) 배낭 속에는 {옷 한 벌, 한 벌의 옷}이 들어 있었습니다.

(6) 민호도 역시 덩치로부터 {배 한 대, *한 대의 배}를 맞고는 쓰러졌
 다.

대부분의 수 보조사는 결합할 수 있는 수 관형사에 제한을 가하지 않는

4) 여기서 ‘수 관형사’란 양수의 수 관형사형을 가리킨다.

5) 명사에 따라 수 보조사 뒤에 조사 ‘의’가 요구되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하다.

(i) 탁자 위에는 두 병의 맥주가 놓여져 있었다.

*탁자 위에는 두 병 맥주가 놓여져 있었다.

(ii) 서너 그루의 양귀비를 뒤턓락에서 키웠다.

서너 그루 양귀비를 뒤턓락에서 키웠다.

어떤 경우이든, 주어진 표현이 제 1 구조와 제 2 구조를 동시에 만족시키면 이 글에서는
 모두 수 보조사로 취급하겠다.

6) ‘대상 명사+조사+수 관형사+수 보조사’(예: 옷이 두 벌 들어있었습니다) 구조도 기본 구
 조에 포함시킬 수 있으나, 이 구조는 양화 범위 설정 문제를 개입시키므로 수 보조사를 정의
 하는 데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기본 구조에서 제외시킨다.

7) 담화 차원에서 제 1구조의 초점(focus)과 제 2 구조의 초점이 서로 다르다는 주장이 있
 다. 이에 대한 논의는 Lee Chungmin(1989)과 김진수(1998) 참조.

다.8) 그러나 일부 수 보조사들은 수 관형사 ‘한’이나 ‘몇’ 등의 특정한 수 관형사와 자주 결합하여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어 수 보조사 ‘오라기’는 말뭉치 예문 56개 가운데 53개 예문에서 수 관형사 ‘한’과 결합하여 나타났고 2개 예문에서 ‘몇’과 결합하여 나타났으며 오직 한 예문에서만 ‘한두’와 결합하여 나타났다.

(7) 옆에 앉은 간호사의 머리카락 한 오라기가 하얀 볼 위를 간지럽혔다.

망건 밑에서 벗어져 나온 몇 오라기 살적과 턱 아래 염소 수염이 이 미 반 넘어 세었다.

눈가에 잔주름 한두 오라기가 잡히기는 했지만 여인은 아직도 싱싱했으며 (...)

또 일부 수 보조사들은 ‘한’과 결합하여 은유적 표현을 만들기도 한다.

(8) 저녁에 걸치는 술 한 사발이 힘들고 단조로운 일을 견딜 만하게 만들었다.

(9) 병원에 가서 주사 한 대 맞으면 병이 곧 나을텐데.

(10) 난 주막에 들어 밥 한 술 얻어먹자고 사정했을 뿐이다.

예문 (8)에서 ‘술 한 사발’은 사발에 담긴 술의 특정 양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술을 마시는 행위나 사건을 포괄적으로 표현한다. 술을 사발에 담아 마시지 않아도, 한 사발이 아니라 여러 사발의 술을 마셔도 위 예문은 여전히 참이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9)의 ‘주사 한 대’는 주사기로 약물을 투여하거나 투여받는 행위 일 회라고 해석될 수도 있지만, ‘주사’로 상징되는 일반적인 의료 행위로 해석될 수도 있다. (10)의 ‘밥 한 술’은 밥이라는 음식의 한 숟가락만큼의 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대상 명사 ‘밥’이 대표하는 한 끼분의 음식을 나타낸다. 이처럼 수 관형사 ‘한’과 결합된 수 보조사는 대상 명사와 관련된 특정 행위를 나타내거나 대상 명사가 속한 부류 전체를 대표하기도 한다.

그런데 수 보조사가 ‘한’과 결합하여 이처럼 은유적으로 쓰인 경우, 수

8) 수 보조사와 결합하는 수 관형사의 통사 규칙에 관해서는 채완(1982)과 윤애선(2002)을 참조.

보조사의 제 1 구조가 제 2 구조로 전환되지 않거나 그 의미가 변하는 경우가 많다.⁹⁾

- (9') ?병원에 가서 한 대의 주사(를) 맞으면 병이 곧 나올텐데.
- (10') ?난 주막에 들어 한 술의 밥(을) 얻어먹자고 사정했을 뿐이다.

그러나 이것은 수 관형사 '한'에 제한된 현상이며, 주어진 수 보조사가 다른 수 관형사와 결합하는 경우 두 구조는 자유롭게 전환된다.¹⁰⁾

- (9'') 열이 심해서 주사 석 대를 놓았습니다.
열이 심해서 석 대의 주사를 놓았습니다.
- (10'') 참기름 네 술을 넣고 잘 섞는다.
네 술의 참기름을 넣고 잘 섞는다.

한편 한국어에서도 수 관형사가 수 보조사의 도움 없이 대상 명사와 병치되어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

- (11) 짜장면 셋, 짬뽕 둘, 탕수육 하나 주세요.
- (12) 사람 셋이 급히 필요합니다.

그러나 (11)의 경우는 이남순(1995)이 주장한 바처럼, 발화자들 사이의 암묵적 합의에 의해 수 보조사 '그릇'이나 '접시'가 이미 선택된 상황에서 수 보조사가 생략된 표현으로 볼 수 있다. (12)의 경우는 이와 같은 화용적 이유와 더불어 '사람 세 사람'이라는 반복적 표현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수 보조사 없이 대상 명사와 수사가 병치된 수량화 표현은 채완(1982, p. 159-166)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제한된 환경에서만 가능하며 대부분의 보통 명사구에서는 불가능하다.

9) 이는 수 관형사 '한'이 갖는 존재적(existential) 성격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Lee Chungmin(1989) 참조.

10) 우형식(1998)에서 수 보조사 제 1 구조와 제 2구조 사이에 전환이 불가능한 사례로 제시된 예문들은 모두 수 관형사 '한'을 포함하고 있다.

3. 한국어 수 보조사의 의미적 특성

한국어에서 특정한 수 보조사는 특정한 명사들만을 수량화하고 나머지 명사들은 수량화하지 못한다. 반대로 특정한 명사는 특정한 수 보조사들에 의해서만 수량화되고 다른 수 보조사들에 의해서는 수량화될 수 없다. 이러한 수 보조사와 명사 사이의 의미적 상호 선택 관계는 다양한 양상을 띠고 나타난다. 수 보조사는 오직 한 부류의 명사만을 수량화하기도 하고 여러 부류의 명사들을 수량화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수 보조사 ‘셋’은 명사 ‘바늘’만을 수량화하는 반면, 수 보조사 ‘개’는 ‘신용카드’, ‘컵’, ‘바퀴’ 등의 작은 물체뿐만 아니라, ‘공장’과 같은 건물, ‘손’과 같은 신체의 일부, ‘군’과 같은 행정지역명, ‘응용 문제’, ‘기준’과 같은 추상적 대상, ‘과의 활동’과 같은 행위, ‘라면 사리’와 같은 물질 등과도 결합하여 나타난다.¹¹⁾

(13) 셋: 수백 **셋**의 바늘이 정수리에 쏟아졌다.

(14) 개: **신용카드** 한 개를 제외하고는 모두 없애 버려라.

컵 두 개를 가져와 술을 따르며 자아 한 잔 하쇼.

우리 동네에는 바퀴 두 개 달린 달구지를 타고 피난 온 사람들이 있었다.

이 고장에는 두 개 공장을 건설하고 있는데 (...)

여보, 저는 손이 두 개 있어요.

두 개의 군이 한 선거구가 되면 선거는 군 대항전이 되고, 단일군 선거구면 먼 대항전이 된다.

시험을 칠 때마다 서술식 응용 문제 두 개를 꼭 출제하셨다.

배우, 오페라 가수 등의 매우 큰 보수는 이러한 두 개의 기준에 근거하고 있다.

아이들의 방과 후 **과의 활동** 두 개를 줄여보아라.

떡볶이 3인분, **라면사리** 두 개, **쫄면사리** 한 개, 튀김 3인분!

반대로 보통 명사들 가운데에는 ‘뜸’처럼 오직 하나의 수 보조사에 의해 수량화될 수 있는 명사들이 있는 반면, ‘사과’처럼 여러 수 보조사들에 의해 수량화될 수 있는 명사들도 있다.

(15) 뜸: 뜸 두어 **장**으로 환자들을 치료했다.

(16) 나는 호텔 직원에게 부탁해서 **라면** **네** 개를 끓여 그들에게 시식시

11) 수 보조사 ‘개’의 차용과정과 의미에 대해서는 채완(1996) 참조.

켰다.

나에게 **라면 한 그릇** 끓여 주겠소?

쌀 세 말과 **라면 두 박스**, 그리고 몇 가지 반찬거리를 샀다.

한국어의 수 보조사는 물체뿐만 아니라 사건(event)이나 일(activity)을 수량화하기도 한다.

- (17) 어제 하루 동안 이 사거리에서 **네 건의 접촉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 (18) 나는 민호에게 **닭싸움 다섯 판**을 내리 졌다.
- (19) 김씨는 오늘도 장난 **전화 세 통**을 받았습니다.
- (20) **비행기 세 편**이 결항했습니다.

사건이나 일을 수량화하는 수 보조사들은 (17)나 (18)처럼 결합하는 대상 명사 자체가 사건이나 일을 지시하는 경우와, (19)나 (20)처럼 물체인 대상 명사에 결합하여 이와 관련된 사건이나 일을 수량화하는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특히 후자의 경우, 대상 명사는 결합한 수 보조사에 따라 물체를 지시하기도 하고 사건이나 일을 지시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전화 석 대’는 전화를 거는데 사용하는 기구 세 개체를 가리키는 반면, ‘전화 세 통’은 전화를 거는 일이나 사건 세 차례를 가리킨다. 또, ‘비행기 석 대’는 하늘을 나는 기구 세 개체를 가리키지만 ‘비행기 세 편’은 이 기구가 하늘을 나는 일 또는 사건 세 차례를 가리킨다.

- (19') 사무실에 **전화 석 대**를 놓았습니다.
김씨는 오늘도 장난 **전화 세 통**을 받았습니다.
- (20') **비행기 석 대**가 정비 중입니다.
비행기 세 편이 결항했습니다.

이처럼, 한국어의 일부 수 보조사들은 대상 명사의 의미 유형을 ‘물체’에서 ‘사건’이나 ‘일’로 전환시키는 기능을 수행한다.

대상 명사에 결합하여 사건이나 일을 수량화하는 수 보조사들은 ‘차례’나 ‘회’, ‘번’과 같은 수 보조사들에 의해 대체될 수 있다.

- (17') 어제 하루 동안 이 사거리에서 **네 차례**의 접촉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 (18') 나는 민호에게 **닭싸움** **오 회**를 내리 졌다.
 (19'') 김씨는 오늘도 **장난 전화**를 **세 번** 받았습니다.

요컨대, 한국어의 사건 수 보조사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판’이나 ‘대’처럼 행위나 사건을 지시하는 대상 명사에 결합하여 사건의 발생 횟수를 명시하는 수 보조사들이 있다. 둘째, ‘전화 세 통’이나 ‘비행기 세 편’의 수 보조사 ‘통’이나 ‘편’처럼, 물체 유형의 명사에 결합하여 그와 관련된 사건이나 일을 수량화하는 수 보조사들이 있다. 셋째, ‘차례’, ‘회’, ‘번’처럼 보편적으로 사건이나 일의 횟수를 나타내는 수 보조사들이 있다.

한편, 수 보조사는 대상 명사를 원자적(atomic)으로 표현하는 수 보조사와 비원자적(atomless)으로 표현하는 수 보조사로 나눌 수 있다. 원자적 상태로 표현된 대상 명사는 각 개체를 더 작은 부분으로 나누면 그 개체가 갖고 있던 고유의 물리적 특성 전체 혹은 그 일부를 잃게 되며, 원자적 상태의 명사들 간의 결합관계는 개체 합(individual sum)¹²⁾ 관계에 의해 표현될 수 있다. 영어나 프랑스어에서는 이와 같은 원자성이 명사 자체에 반영되어 가산 명사와 물질 명사를 나누는 기준으로 작용하지만, 한국어에서는 명사를 수량화하는 수 보조사에 의해 원자성이 표현되기도 한다.¹³⁾

수 보조사의 원자성 표현 여부는 대상 명사 한 단위(unit)의 어림 표현(approximation)을 만들어 봄으로써 확인될 수 있다. X가 수량화될 명사라고 했을 때 ‘약 하나의 X’는 X 한 단위보다 조금 모자라거나 남는 상태의 X를 가리키는데, 이 때의 X는, X 한 단위가 갖는 의미적 특성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그런데 원자적 상태로 표현된 명사는 그 일부를 쪼개어 빼거나 더하면 본래의 의미적 특성이 변하므로 어림 표현이 대상 명사의 동질성을 보장하지 않거나 어림 표현 자체가 불가능하다. 반면에 비원자적 상태로 표현된 명사는 그 일부를 쪼개어 빼거나 더해도 대상 명사 본래의 의미적 특성이 변하지 않으므로 어림 표현이 항상 가능하다.

- (21) *{약 한 판의 닭싸움, 닭싸움 약 한 판}을 했습니다.
 (22) *{약 한 명의 경찰관, 경찰관 약 한 명}이 도착했습니다.
 (23) *{약 한 결례의 운동화, 운동화 약 한 결례}를 샀습니다.

12) Link (1983).

13) 그런데 언어에 나타난 원자성과 인간이 인지하는 원자성이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영어의 명사 furniture는 비원자적인 물질 명사로 분류되지만 영어 화자들은 furniture가 지시하는 물체를 원자적인 것으로 인지한다(Barner and Snedeker, 2003).

(24) {약 한 근의 토마토, 토마토 약 한 근}을 샀습니다.

(25) {약 한 바구니의 토마토, 토마토 약 한 바구니}를 땀습니다.

사건 수 보조사들에 의해 수량화된 명사들은 예문 (21)에서처럼 어림 표현이 불가능하다. 물체 유형의 명사를 수량화하는 수 보조사들은 예문 (22)의 '명'이나 (23)의 '컬레'처럼 어림 표현을 불가능하게 하는 부류와, 예문 (24)의 '근'이나 (25)의 '바구니'처럼 어림 표현을 가능하게 하는 부류로 나뉘어진다.

그런데 수 보조사가 대상 명사에 대해 표현할 수 있는 원자적 상태는 수 보조사의 종류에 따라 차이가 있다.

(26) 운동화 한 컬레를 샀습니다.

'운동화 한 컬레'는 '운동화 두 짝'으로 구성된다. 전자의 수 보조사 '컬레'가 어림 표현을 허용하지 않듯이 후자의 수 보조사 '짝'도 어림 표현을 허용하지 않으므로, 두 수 보조사 모두 대상 명사를 원자적 상태로 표현할 수 있다.

(26') *운동화 약 한 컬레

*운동화 약 한 짝

그러나 이들이 표현하는 원자적 상태는 서로 다르다. '운동화 한 컬레'는 원자성 수 보조사 '짝'에 의해 수량화된 대상 명사 '운동화'의 일정수가 모인 상태를 나타내며, 일정 개체수가 충족되지 않으면 '운동화'는 수 보조사 '컬레'에 의해 수량화될 수 없다. 반면에, 일정 수가 모여 '운동화 한 짝'을 만들 수 있는 개체를 수량화할 수 있는 원자성 수 보조사는 존재하지 않는다. 수 보조사 '컬레'와 같은 의미적 특성을 지닌 수 보조사를 '집합 수 보조사'라 하고, 수 보조사 '짝'과 같은 의미적 특성을 지닌 수 보조사를 '개체 수 보조사'라 할 때, 이들은 다음 테스트에 의해 구별해 볼 수 있다.

수 보조사 Y와 Z가 어림 표현과 결합하지 못하고,

수 관형사 N이 1이 아닐 때

[X명사 한수 관형사 Y수 보조사]는 [X명사 N수 관형사 Z수 보조사]로 이루어진다.

Z에 대입될 수 있는 수 보조사가 하나 이상 존재하면 Y에 대입된 수 보조사는 집합 수 보조사이고 Z에 대입될 수 있는 수 보조사가 존재하지 않으면 Y에 대입된 수 보조사는 개체 수 보조사이다.¹⁴⁾

(26") **운동화 한 켤레는 운동화 두 짝으로 이루어진다.**
운동화 한 짝은 운동화 # ? #으로 이루어진다.

한국어의 수 보조사들은 또, 대상 명사를 직접 수량화하는 수 보조사들과 대상 명사와 관련된 특정 매체-대부분의 경우 대상 명사를 담는 용기를 수량화함으로써 대상 명사를 간접적으로 수량화하는 수 보조사들로 구별해 볼 수 있다.

(27) a. 맥주 1000 밀리리터를 마셨습니다.
 b. 맥주 두 잔을 마셨습니다.

‘맥주 1000 밀리리터’와 ‘맥주 두 잔’은 모두 맥주의 양을 나타낸다. 그런데 전자는 표준화된 계량 단위로 맥주의 양을 직접 나타내는 반면, 후자는 맥주를 담는 용기인 ‘잔’을 세어서 맥주의 양을 간접적으로 나타낸다. 이 같은 간접 수량화에 사용된 수 보조사들은 본래 통사적 자립성을 갖고 대상 명사와 관련된 물체들을 지시한다. 그러나 일단 명사의 수량 표현에 사용되면 본래의 지시성을 잃고 대상 명사의 양을 나타내는 기능만을 수행한다. 예문 (27b)의 ‘잔’은 더 이상 ‘맥주를 담아 마시는 작은 그릇’을 가리키지 않고 오직 맥주의 양을 나타내는 기능만 한다. 이는 수량 표현인 ‘맥주 두 잔’이 ‘잔’의 지시성을 드러내는 술어와 어울리지 못하는 현상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7) c. 잔이 {깨졌습니다, 부서졌습니다}.
 d.*맥주 두 잔이 {깨졌습니다, 부서졌습니다}.

간접 수량화 수 보조사를 사용한 수량 표현들은 발화 상황에 따라 직접 수량화 수 보조사를 사용한 수량 표현으로 대치될 수 있다.

14) 만약 Z에 집합 수 보조사가 대입되면 Y에는 집합 수 보조사들만이 대입될 수 있다.

- (28) a. 밀가루 반죽에 물 한 컵을 넣으시오.
 b. 민호야, 물 한 컵 가져오너라.

예문 (28a)가 요리 강좌에서 발화되었다면, 수 보조사 ‘컵’에 대해 ‘물 한 컵은 물 250 밀리리터로 환산된다’란 명제가 참으로 간주된다. 그리하여 ‘물 한 컵을 넣으시오’는 ‘물 250 밀리리터를 넣으시오’와 같은 진리 조건을 갖는다. 그러나 어느 더운 날, 예문 (28b)가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서 발화되었다면 ‘물 한 컵은 물 250 밀리리터로 환산된다’란 명제는 항상 참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이 때의 수 보조사 ‘컵’은 100 밀리리터가 될 수도 있고 200 밀리리터가 될 수도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그 값을 알 수 없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대상 명사를 간접적으로 수량화하는 수 보조사들은 원자적 상태의 명사와 비원자적 상태의 명사 모두를 수량화할 수 있다. 위 예문 (28a)와 (28b)는 ‘물’이라는 비원자적 상태의 대상 명사를 수량화하고 있는 반면, ‘디스켓 두 상자’나 ‘굴 한 바구니’의 수 보조사 ‘상자’와 ‘바구니’는 원자적 상태의 명사들을 수량화하고 있다. 간접적으로 수량화된 원자적 상태의 명사들은 집합 수 보조사에 의해 수량화된 명사들처럼 구성적이다. 예를 들어 디스켓 한 상자는 10개 나 20개로 구성되고, 굴 한 바구니는 20개 나 100개로 구성된다. 그러나 집합 수 보조사와 달리, 대상 명사를 간접적으로 수량화시키는 수 보조사의 사용은 대상 명사의 수량에 의해 조건지워지지 않는다. 신발 두 짝은 집합 수 보조사 ‘켈레’에 의해 수량화될 수 있다. 그러나 디스켓 10장은 수 보조사 ‘상자’에 의해 반드시 수량화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디스켓 한 상자는 5장을 포함할 수도 있고, 10장을 포함할 수도 있으며, 20장을 포함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잔’이나 ‘컵’, ‘사발’, ‘병’, ‘술’처럼 비원자적 상태의 명사를 간접적으로 수량화하는 수 보조사를 준계량 수 보조사라 하고, ‘상자’, ‘바구니’, ‘꾸러미’처럼 구성적인 원자적 상태의 명사를 간접적으로 수량화하는 수 보조사를 준집합 수 보조사라 하겠다.

이제까지 3절에서 기술한 한국어 수 보조사의 의미적 특성은 다음 표로 요약할 수 있다.

<표 1> 한국어 수 보조사의 의미적 특성 분석표

	사건성	원자성	간접 수량성	구성성	예
사건 수 보조사	O	O	X	O/X	살인 사건 세 건, 전화 세 통, 닭싸움 세 판, 노래 한 가락
개체 수 보조사	X	O	X	X	권총 세 자루, 편지 세 통, 계단 세 단, 짚신 세 짝, 엿 세 가락, 소나무 세 그루, 경찰관 세 명, 실 한 오라기, 수류탄 세 발, 침 세 방, 말 세 필, 우슬초 세 포기, 인삼 세 뿌리, 버섯 세 송이
집합 수 보조사	X	O	X	O	짚신 세 겹래, 농기구 세 벌, 연필 세 타스, 구관조 세 쌍
준집합 수 보조사	X	O	O	O	라면 세 상자, 굴 세 바구니, 계란 세 꾸러미, 탄약 세 통
계량 수 보조사	X	X	X	X	나무 석 단, 비단 세 필, 토마토 세 관, 인삼 세 근
준계량 수 보조사	X	X	O	X	치약 세 통, 밥 한 술, 쌀 세 자루, 빵 한 입, 케일 세 상자, 김치 세 사발, 참기름 세 숟가락, 커피 석 잔, 물 세 컵, 라면 세 그릇

4. 명사의 범주화와 수 보조사

대상 명사와 수 보조사 사이에 의미적인 상호 선택 관계가 존재하는 사실에 근거하여, 수 보조사를 보통 명사의 범주화 혹은 부류화(categorization)의 근거로 간주하는 연구 경향이 있다(김진수, 1998; 우형식, 1998, 2000; Aikhenvald, 2000). 이 경향을 따르는 연구에서 수 보조사는 ‘분류사(classifier)’ 혹은 ‘수 분류사(numeral classifier)’라 불리운다. 이

연구들은, 의미적 유사성에 따라 모든 명사는 반드시 어떤 상위 부류에 속하게 되고, 이 상위 부류에 속하는 모든 명사는 특정 수 보조사와 반드시 결합할 수 있다고 전제한다. 그리고 명사와 수 보조사의 선택 관계를 명사의 시각적 특성이나 기능, 크기, 전체-부분 관계¹⁵⁾ 등으로 설명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특히 이러한 연구들은 Lakoff(1987)식의 인지 모델을 받아들이고 있다.

그러나 대규모 말뭉치에서 수 보조사 50개의 용례들을 관찰한 결과, 이와 같은 접근 방식에는 한계가 있음이 발견됐다. 관찰 영역을 좁은 범위로 제한했을 때에는 명사와 수 보조사의 결합 관계가 분명히 의미적 규칙성을 띠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분석 대상의 영역을 조금만 확대하면 반례들이 너무 많이 발견되어 이러한 규칙성이 희석된다. 예를 들어 김진수(1998)는 여섯 개의 식물 분류사-포기, 그루, 송이, 떨기, 뿌리, 줄기-를 인지적 기준에서 분류했는데, 그가 도입한 의미 분류 기준에 따르면 ‘포기’와 ‘그루’는 모두 식물 개체 전체를 수량화할 수 있으므로 ‘전체’라는 자질이 모두 긍정 값을 갖는다. 그러나 ‘포기’는 쉽게 옮겨 심을 수 있는 크기 혹은 아직 어린 나무의 전체를 지시하므로(김진수, 1998, p. 11) ‘이동의 용이성’ 자질에 긍정 값을 갖지만, ‘그루’는 작은 의미의 차별이나 세밀함이 제거된 분류사로서 ‘이동의 용이성’ 자질에 부정 값을 갖는다(김진수, 1998, p. 11). 다음은 김진수의 예이다.

(30) *감나무 열 포기를 심었다.

*느티나무 스무 포기가 이번 태풍에 쓰러졌다.

(31) 감나무 묘목 열 포기를 나무시장에서 사 왔다.

느티나무 묘목 스무 포기가 이번 태풍에 쓰러졌다.

이와 같은 인지적 분류 기준에 따르면, 예문 (31)의 ‘감나무 묘목’이나 ‘느티나무 묘목’은 ‘이동의 용이성’ 자질에 긍정 값을 가지므로 ‘포기’만을 취해야 한다. 그러나 ‘포기’ 대신 ‘그루’를 대입해도 주어진 예문들은 자연스럽다.

(31') 감나무 묘목 열 그루를 나무시장에서 사 왔다.

느티나무 묘목 스무 그루가 이번 태풍에 쓰러졌다.

15) 우형식 (2000, p. 62-73).

또, 김진수의 분류 기준에 따르면 ‘분재’는 ‘전체’ 자질과 ‘이동의 용이성’ 자질에 모두 긍정 값을 가지므로 ‘포기’와 결합해야 하나, 실제 용례에서는 ‘그루’와만 결합하여 나타난다.

(32) 키가 1m쯤 되는 다채로운 분재 세 {그루, *포기}가 보였다.

이 밖에도, 김진수(1998, p. 7-8)는 ‘포기’와 ‘송이’를 구별하면서 ‘포기’는 식물 한 개체의 모든 부분을 지칭하므로 ‘전체’ 자질에 긍정 값을 갖지만 ‘송이’는 꽃만을 지칭하므로 ‘전체’ 자질에 부정 값을 갖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말뚝치에 나타난 ‘송이’는 꽃뿐 아니라 포도와 버섯도 수량화하고 있으며, 특히 버섯을 수량화할 때에는 버섯의 어느 한 부분이 아니라 버섯 전체를 지칭하므로 ‘전체’ 자질에 긍정 값을 갖는다.

(33) 음지에 소담스럽게 자란 송이 버섯 열 송이를 발견했다.

이처럼, 대상 명사와 수 보조사 사이의 의미적인 상호 선택 관계에 대해서 일반적인 규칙을 설정할 수 있을 지는 모르나 이 규칙에 위배되거나 규칙으로 설명할 수 없는 수많은 반례들 때문에 결국 설정된 규칙이 무효해진다. 이는 수 보조사와 대상 명사의 선택 관계가 인지적 혹은 의미적 원칙에 의해 일관성 있게 설명될 수 없으며, 따라서 수 보조사는 보통 명사를 체계적으로 범주화할 수 있는 의미 기준을 제공하지 않는다는 결론에 이르게 한다.

수 보조사와의 결합 관계에 따른 명사 범주화가 갖는 또다른 문제점은, 하나의 명사가 여러 수 보조사와 결합하는 경우, 어떤 수 보조사가 어떤 이유로 선택되었는가에 대해 기술할 수 있어야 하는데, 수 보조사를 명사 범주화 기제로 보는 연구들은 이에 대한 납득할 만한 설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34) 호두 세/삼/석 {개, 알, 자루, 되, 그램}

우형식(2000, p. 67, 70-73)은 명사 ‘호두’와 결합할 수 있는 수 보조사 ‘개’는 ‘무생물-자연물’을 나타내는 보편적 분류사(혹은 수 보조사)이고, 분류사 ‘알’은 ‘원형이고 크기가 작으며 먹을 수 있는 사물’을 나타내는 한정적 분류사라고 구별하고, 이 분류사들 사이에는 계층적 위계 관계가

성립한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명사 ‘호두’는 ‘개’나 ‘알’뿐만 아니라 ‘자루’, ‘되’, ‘그랩’과 같은 수 보조사들과도 결합할 수 있는데, 이들과 수 보조사 ‘개’ 사이의 계층적 위계 관계는 ‘개’와 ‘알’을 구별하는 데 사용되었던 방식으로 설명될 수 없다.

이처럼, 하나의 명사가 여러 수 보조사와 결합할 수 있을 때, 특정 수 보조사의 선택은 명사의 범주화 관점에서 설명되기 어려우며, 채완(1990)의 주장처럼 화자의 발화 의도에 따른 화용적 선택에 따라 이루어질 뿐이다.

현재로서 수 보조사와 대상 명사의 의미적 선택 관계, 다시 말해서 어떤 수 보조사가 어떤 명사를 수량화할 수 있는가, 어떤 명사가 어떤 수 보조사들에 의해 수량화될 수 있는 있는가를 정확하게 기술할 수 있는 방법은 말뭉치에 나타난 실제 용례들을 일일이 나열하는 방법밖에 없어 보인다. 그리고 이러한 기술 방식에서 유일하게 유효한 언어 관계는 상위어-하위어 관계(hyponymy)¹⁶⁾뿐이다. 왜 이 수 보조사가 이 명사들은 수량화할 수 있고, 다른 명사들은 수량화할 수 없는가라는 질문에 대답할 수 있기 위해서는 아동의 언어 학습과 인간 뇌의 언어 처리에 대한 연구가 진척되기를 기다려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지금으로서는 이 같은 질문에 대한 대답을 구하기보다, 어떤 수 보조사가 어떤 명사와 결합했을 때 어떤 의미를 나타내는가를 관찰하는 것이 언어학적으로 더 의미 있다고 생각된다.

5. 명사의 지시 의미 명세화와 수 보조사

수 보조사와 대상 명사의 결합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보통 명사 각각에 타입(type)을 부여하고 수 보조사를 대상 명사의 타입을 제한하는 함수로 다루는 연구가 있다 (Kang, 1994; 강범모, 1999). 이 연구는 한국어의 보통 명사를 원자적 상태로 존재할 수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에 따라 가산 명사 타입과 물질 명사 타입으로 구별하고, 이러한 의미 타입의 차이를 바탕으로 수량 표현에 나타난 수 보조사들을 타입 전이(type shift)를 수행하는 함수로 취급한다. 대부분의 수 보조사들은 가산 명사 타입을 가산 명사 타입으로, 또 물질 명사 타입을 물질 명사 타입으로 전이시키는 동일 사상(identity mapping)을 일으키지만, ‘잔’과 같은 수 보조사는 물질 명사 타입을 가산 명사 타입으로 전이시킨다. 이 논리에 따르면, ‘물 두 권’

16) 예를 들어 ‘자동차’가 수 보조사 ‘대’와 결합가능하면 모든 종류의 자동차 -트럭, 자가용, 지게차 등등-는 같은 수 보조사에 의해 수량화될 수 있다.

이나 ‘책 두 잔’이 비문법적인 것은 의미 타입 전이 함수, 즉 수 보조사가 부여하는 선택 제약(selectional restriction)을 위반했기 때문이다. 수 보조사 ‘권’은 가산 명사를 가산 명사로 전이시키는 동일 사상을 일으키는 함수인데, 결합된 대상 명사 ‘물’은 물질 명사이므로 수 보조사 ‘권’이 부여하는 영역의 선택 제약 관계를 위반했다. 또, ‘책 두 잔’의 수 보조사 ‘잔’은 물질 명사를 가산 명사로 전이시키는 함수인데 결합된 대상 명사 ‘책’이 가산 명사이므로 이 또한 수 보조사 ‘잔’이 부여한 타입 선택 제약 관계를 위반했다.

그러나 한국어의 보통 명사 각각에 대해 가산 명사나 물질 명사란 의미 타입을 부여하고, 그들 사이에 타입 전이 관계를 설정하는 것은 대상 명사와 수 보조사 사이의 결합 관계를 설명하는 데 충분하지 않아 보인다. 우선, 한국어의 보통 명사에 가산 명사나 물질 명사의 타입을 지정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한국어는 가산/물질 명사의 구분이 영어나 프랑스만큼 엄밀하지 않다. 예를 들어 프랑스어의 보통 명사는 부정 관사(un, une, des)를 취하는가 부분 관사(du, de la)를 취하는가에 따라 가산 명사 타입과 물질 명사 타입으로 나뉘어지는 반면, 한국어는 이와 같은 관사 체계를 갖고 있지 않다. 또, 한국어에서 가산 명사의 복수성을 드러내줌으로써 가산/물질 명사 구분의 근거가 된다고 주장되어온 접사 ‘들’ 역시, 영어나 프랑스어의 복수 표지 ‘-s’¹⁷⁾ 만큼 일관되게 의미 타입의 상관 관계를 나타내지 않는다. 예를 들어 가산/물질 명사의 타입 구별을 따르자면 보통 명사 ‘물’은 물질 명사 타입이므로, 접사 ‘들’과 결합할 수 없다. 그러나 한국어에서 명사 ‘물’은 접사 ‘들’과 결합하여 자연스러운 문장을 만들 수 있다.

(36) 여러 종류의 물들이 있다.

반대로, 접사 ‘들’은 복수 가산 명사와 결합하여 비문을 만들기도 한다.

(37) *경찰관들 세 명 / 경찰관 세 명
*사과들 세 개 / 사과 세 개

따라서 접사 ‘들’과 가산 명사의 결합성은 한국어 보통 명사가 가산/물

17) 여기서 ‘-s’는 영어나 프랑스어에서 단수 보통 명사를 복수 보통 명사로 만드는 데 사용되는 다른 모든 형태소들을 대표한다.

질 명사의 타입 구별을 내재하고 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

이상으로 미루어볼 때, 한국어의 보통 명사를 영어나 프랑스어의 보통 명사처럼 가산 명사와 물질 명사로 구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이며, 따라서 한국어의 수 보조사가 보통 명사의 의미 타입을 전이하는 기능을 한다는 설명은 제한된 범위에서만 유효할 수밖에 없다.

앞서 3절과 4절에서 기술한 수 보조사의 의미적 특성을 고려하면, 한국어 수 보조사의 주된 기능은, 결합된 대상 명사의 지시 의미를 명세화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결합된 대상 명사가 지시적으로나 수량적으로 중의적인 경우, 수 보조사가 부가되어 수 관형사에 의해 수량화되는 대상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명시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4') {장미 두 송이, 장미 두 그루}

이 명사구에 나타나는 명사 '장미'는 수량적으로 중의적이다. 다시 말해서, 문제가 되는 개체가 하나인지 여럿인지 알 수 없다. 이는, 앞서 말했다시피 문제의 명사구 구조가 통사적으로 접사 '들'이 명사 뒤에 부가되는 것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수량적 중의성은 수 관형사가 명사 뒤에 부가되어야만 해소된다. 다른 한 편, 명사 '장미'는 지시적으로도 중의적이다. 명사 '장미'가 단독으로 쓰였을 때에는 꽃으로서의 장미를 가리키는지, 나무로서의 장미를 가리키는지 알 수 없다. 수 보조사 '송이'가 명사 '장미'에 부가된 뒤에야 장미의 꽃만이 수량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마찬가지로 수 보조사 '그루'가 명사 '장미'에 부가된 뒤에야 장미 나무가 수량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요컨대, 대상 명사의 수량적 중의성은 수 관형사와 수 보조사에 의해 해소되고, 대상 명사의 지시적 중의성은 수 보조사에 의해 해소되는 것이다.

이 때, 수 보조사가 갖는 지시 정보의 양은 명사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 '자동차 두 대'의 경우, 대부분의 중요한 지시 정보가 대상 명사인 '자동차'에 담겨져 있고 수 보조사 '대'는 '자동차'의 지시 의미 가운데 일부를 반복하여 강조하는 역할만을 담당한다. '장미 두 송이/장미 두 그루'나 '전화 두 통/전화 두 대'처럼 대상 명사가 지시적으로 중의적인 경우에는 수 보조사가 결정적인 지시 정보를 제공한다.

수 보조사가 제공하는 지시 정보는 단순히 대상 명사의 원자성, 다시 말해서 대상 명사가 가산 명사인지, 물질 명사인지에 관한 것만은 아니다. 앞

서 3절에서 살펴본 바에 따르면 수 보조사는 대상 명사의 원자성뿐만 아니라, 사건성, 수량 방식(수량 방식이 직접적인가 간접적인가), 구성성 등에 대한 지시 정보를 제공한다. 만약 수 보조사를 의미 타입의 관점에서 기술하고자 한다면, 각 의미 타입을 단순히 원자성만을 고려하여 정의할 것이 아니라 사건성, 수량 방식, 구성성과 같은 정보들을 모두 고려하여 가능한 모든 조합을 타입으로 정의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수 보조사와 결합하는 모든 보통 명사들은 이러한 타입 정의에 의거하여 적절한 의미 타입을 할당받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타입 정의가 복잡해지면 수 보조사를 단순히 타입 전이 관계에 의존하여 설명하는 것이 어려워지며, 이보다 수 보조사가 명세화되어 있는 보통 명사의 지시 의미를 명세화하는 기능을 수행한다고 보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본 논문은 3개의 대규모 말뭉치에서 추출한 50개의 수 보조사의 용례들을 바탕으로 한국어 수 보조사의 의미 특성을 기술해 보았다. 한국어의 수 보조사는 원자성뿐 아니라 사건성, 수량 방식, 구성성 등의 관점에서, 결합된 대상 명사의 지시 의미를 명세화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반면에 일부 학자들의 주장과 달리, 한국어의 수 보조사는 보통 명사의 의미적으로 범주화하는 분류사로서 기능한다고 볼 수 없으며, 대상 명사의 원자성 여부에 근거한 의미 타입 전이 기능을 수행한다는 설명 역시 한계를 갖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참고 문헌

- 강범모. (1999). 양화 의미: 복수, 물질, 타입, 형식 의미론과 한국어 기술 pp. 114-156). 서울: 한신 문화사.
- 김영희. (1981). 부류 셈술말로서의 셈가름말. *배달말* 6, 1-28.
- 김진수. (1998). 식물 분류사의 인지의미론적 고찰. *언어* 19, 99-114.
- 남기심,고영근. (1985), *표준 국어문법론*. 서울: 탑출판사.
- 서정수. (1994). *국어 문법*. 서울: 뿌리깊은 나무.
- 우형식. (1998). 국어 수량화 구성의 분포와 기능 분석. *담화와 인지* 5(2), 57-80.

- 우형식. (2000). 한국어 분류사의 기능과 범위. *한글* 248. 49-84.
- 윤애선. (2002). 아라비안 숫자의 자동 전사를 위한 언어관계 연구. *한국불어불문학회 동계학술대회*. 57-69.
- 이남순. (1995). 수량사 구성의 몇 문제. *애산 학보* 16. 43-67.
- 임홍빈. (1991). 국어 분류사의 성격에 대하여. *간행 위원회(편). 국어학의 새로운 인식과 전개(김완진 선생 회갑 기념 논총)*. 586-611.
- 채완. (1982). 국어수량사구의 통시적 고찰 -어순변화의 일례로서. *진단학보* 53.54. 155-170.
- 채완. (1990). 국어 분류사의 기능과 의미. *진단 학보* 70. 167-180.
- 채완. (1996). 국어의 분류사 '개'의 차용 과정과 의미. *진단 학보* 82. 193-215.
- 최현배. (1937). *우리말본*. 서울: 정음문화사 (1994).
- Aikhenvald, A. Y. (2000). *Classifiers*. Oxford: Oxford Univ. Press.
- Barner, D. & Snedeker, J. (2003). The Use of Mass Nouns to Quantify Over Individuals. In *Proceedings of the 25th Annual Conference of the Cognitive Science Society*.
- Blin, R. (2003). Interprétation du groupe numérique avec spécifique en japonais écrit. *Cahiers de Linguistique Asie Orientale* 32(1). 3-21.
- Couralet, S., Antonov, A., & Son, Hyunjung. (2004). Classification des Auxiliaires du nombre en coréen. Paper presented at *Les 18èmes Journées de Linguistique d'Asie Orientale*, Paris, 28-29 June.
- Kang, Beom-mo. (1994). Plurality and Other Semantic Aspects of Common Nouns in Korean. *Journal of East Asian Linguistics*, 3(1). 1-24.
- Lakoff, G. (1987). *Women, Fire and Dangerous Things; What categories reveal about the mind*. Chicago: Univ. of Chicago Press.
- Lee, Chungmin. (1989). (In)definites, Case Markers, Classifiers and Quantifiers in Korean. In S. Kuno et al. (eds.), *Harvard Studies in Korean Linguistics III* (pp. 1-18). Boston: Dept. of Linguistics, Harvard Univ.
- Link, G. (1983). The Logical Analysis of Plurals and Mass Terms: A Lattice-theoretical Approach. In R. Bäuerle et al. (eds.), *Meaning*,

Use and the Interpretation of Language (pp. 303-323). Walter de Gruyter and Co.
Martin, S. E. (1992). *A Reference Grammar of Korean*. Tuttle Language Library.

손현정

서울시 서대문구 신촌동 134번지
연세대학교 문과대학 불어불문학과
전화: 010-3212-1574
이메일: hyunjson@gmail.com

Stéphane Couralet

Ecole des Hautes Etudes en Sciences Sociales (EHESS)
54, Bd. Raspail 75006 Paris
전화: 33-1-45 57 18 72
이메일: sotebane@yahoo.fr

Received: 30 Sept, 2005

Revised: 16 Dec, 2005

Accepted: 19 Dec, 2005